Chung Buk Vision 2012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 김 진 덕

2012 | 도정기획과제 – 01 |

충북발전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요약] ····· 6

문제제기 ····· 10

1.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 10
1.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 11

노동시장의 현황 ····· 14

2.1 세계적 현황 ····· 14
2.2 전국현황 ····· 15
2.3 충북지역 일반현황 ····· 16
2.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 18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 22

3.1 인력의 고학력화 ····· 22
3.2 청년층이 느끼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 24
3.3 저임금 · 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 25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32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 36

5.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 …… 36
5.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 37
5.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38
5.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의 확충 …… 39
5.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 40
5.6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 등을 통한 정보제공 …… 42
5.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 42
5.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 43
5.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44
5.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44

[참고문헌] …… 46

Contents | 표목차 |

〈표 1〉 기업규모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인원(2011년 상반기) ····· 11
〈표 2〉 산업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2011년 상반기) ····· 11
〈표 3〉 최근 청년실업률(자)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자) 비교 ····· 16
〈표 4〉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 17
〈표 5〉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변화 추이 ····· 18
〈표 6〉 충북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 19
〈표 7〉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직업(상위 5개 직업) ····· 20
〈표 8〉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 추이 ····· 22
〈표 9〉 주요 산업 취업계수 추이 ····· 24
〈표 10〉 공공행정 및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층 규모 ····· 24
〈표 11〉 광업 및 제조업 비교현황 ····· 26
〈표 12〉 광업 및 제조업 1인당급여액(상위20개업종) 비교 ····· 26
〈표 13〉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급여액(상위20개 업종) 비교 ····· 28
〈표 14〉 충북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 현황(2009년) ····· 33
〈표 15〉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 현황 ····· 34
〈표 16〉 1인당 급여액 상위지역 간 비교 ····· 36

Contents | 그림목차 |

〈그림 1〉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 10
〈그림 2〉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 ····· 14
〈그림 3〉 최근 청년층 고용률 ····· 15
〈그림 4〉 OECD 주요국 15~24세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2009년) ····· 16
〈그림 5〉 충북지역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수 ····· 19
〈그림 6〉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산업 ····· 20
〈그림 7〉 지역별 진학자 비율 추이 ····· 23
〈그림 8〉 대학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 23
〈그림 9〉 청년층 구직단념 이유 ····· 25
〈그림 10〉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보유현황-학력수준별/전략산업별 ····· 29
〈그림 11〉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32
〈그림 12〉 인력수급네트워크 구축(안) ····· 41

요약

□

○ 청년층 취업자수 : 2000년 14만2천명(21.4%) > 2011년 10만7천명(14.3%)

○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

- 2011년 청년층 고용률은 38.3%로 2000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2011년 청년층 실업률은 6.2%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3%의 인력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300인 미만 사업체 : 부족인원 8,333명, 3.7%의 부족률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로 가장 높은 부족률 기록

□ , , .

○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7%로 2000년 72.3%보다 13.5% 상승

○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

- 충북(85.7%) > 충남(85.1%) > 대전(80.2%) > 전국(79.0%)

○ 충북지역 청년층의 구직 단념 이유로 전공이나 경력,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을 지적

○ 충북지역 제조업의 1인당급여액은 2009년 기준 전국 평균과 약 2백여만원의 차이 발생

-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

○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과 전국 평균 급여액 상위 산업 간의 급여차이 존재

-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 9백만원, 20위 산업 간 차이는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 인력 비중이 가장 큼

□

○ 취업의욕 및 자신감 감소 등의 개인의 인적능력을 저하

○ 도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역외에서 구직하려는 인력 증가

- 전문대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56.2% > 도외 43.8%

- 대학교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36.3% > 도외 63.7%

○ 실업자수의 증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지역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 초래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의 재원 낭비 초래

○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 기반 붕괴 우려

□

○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우 임금측면에서 비교적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

-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체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

○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산업 이외의 고임금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짐

○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의 확보 필요

○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지역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특성화 유도

-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 양성 및 이전기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칭)교육

과학정보통신융합대학원대학교’ 설립 고려

○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

- 유치기업이 지역인재 신규채용 시 다양한 보조금 지급

○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및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

-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

○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및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중·고등교육기관, 지역대학, 학부모 등에 지역의 고용시장 및 일자리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01

문제제기

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01 문제제기

1.1 청년층 취업자수의 감소 및 증가하는 실업률

○ 2011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10만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74만6천명의 약 14.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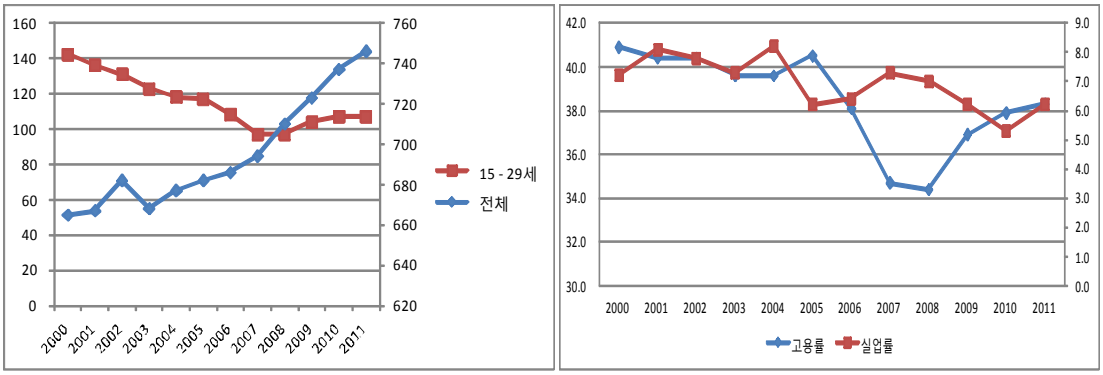
- 청년층 취업자수의 경우 2000년 14만2천명에서 2011년 10만7천명으로 3만5천명 감소하였으며, 비중면에서도 2000년 21.4%보다 7.1%p 감소한 14.3%를 기록함

○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용률 및 증가하는 실업률

- 충북지역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38.3%로 2000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충북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1년 현재 6.2%로 201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자수 추이

(단위 : 명, %)



: ,

1.2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

○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업측면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 발생

○ 2011년 상반기 5인 이상 사업체는 3.3%의 인력 부족률을 나타내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대기업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300인 미만 사업체 : 부족인원 8,333명, 3.7%의 부족률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3.9%로 가장 높은 부족률을 보임

〈표 1〉 기업규모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2011년 상반기)

(단위 : 명, %)

규 모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5인 이상 전체	259,313	21,745	16,769	4,976	8,847	3.3	9,726
300인 미만	219,456	18,289	13,171	5,118	8,333	3.7	9,102
5~ 9인	42,079	3,436	2,553	882	1,787	4.1	1,920
10~29인	64,647	5,556	4,122	1,434	2,446	3.6	2,616
30~99인	64,080	5,004	3,202	1,802	2,323	3.5	2,504
100~299인	48,650	4,294	3,294	1,000	1,777	3.5	2,062
300인 이상	39,857	3,456	3,598	-142	514	1.3	624

) = /
: ,

〈표 2〉 산업별 부족률 및 채용계획 인원(2011년 상반기)

(단위 : 명, %)

산업분류	현원	구인 인원	채용 인원	미충원 인원	부족 인원	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전산업(5인이상)	259,313	21,745	16,769	4,976	8,847	3.3	9,726
광 업	740	27	22	5	25	3.3	19
제 조 업	123,836	9,121	6,042	3,080	5,045	3.9	5,47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4,737	12,597	10,706	1,891	3,778	2.7	4,236

) = /
: ,

Chung Buk Vision 2012

02

노동시장의 현황

1. 세계적 현황
2. 전국현황
3. 충북지역 일반현황
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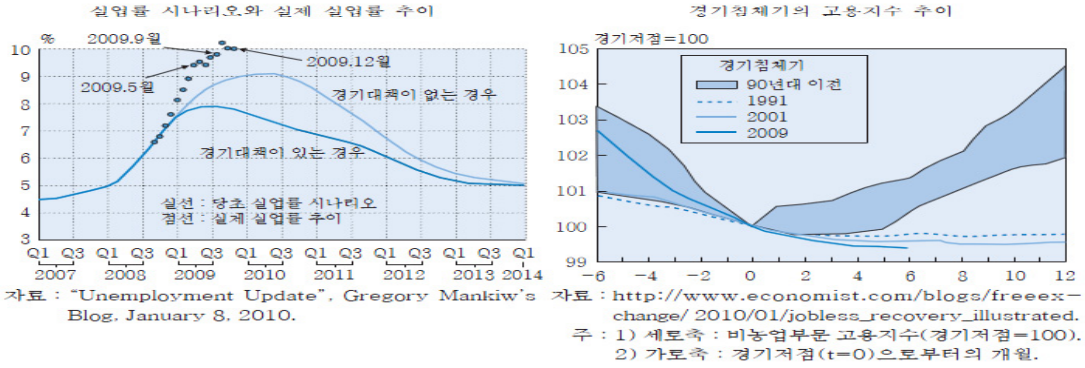
02 노동시장의 현황

2.1 세계적 현황

○ 최근 노동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미국경제의 경우에도 대규모 재정투입에 의한 고용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실업률 상승을 8% 이내로 억제하겠다던 오바마 경제팀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한 상황임 (산업연구원, 2010)

〈그림 2〉 미국경제의 고용 없는 경기회복



자료 : "Unemployment Update", Gregory Mankiw's Blog, January 8, 2010.

자료 :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 2010/01/jobless_recovery_illustrated.

주 : 1) 세로축 : 비농업부문 고용지수(경기저점=100).
2) 가로축 : 경기저점(t=0)으로부터의 개월.

: , , 2010

- 일본의 경우에도 총무성이 발표한 7~9월 노동력 조사 상세집계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기회가 적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완전실업자수는 277만명으로 기업과 구직자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의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1)]

2.2 전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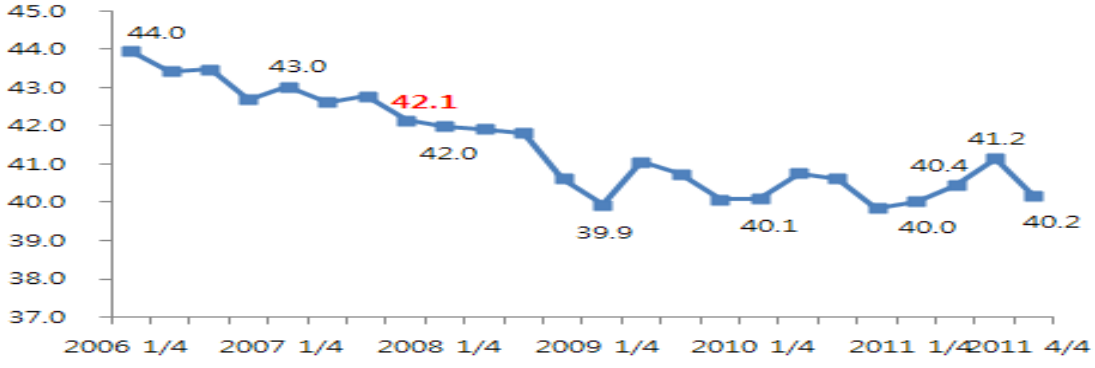
2.2.1

○ 2011년 4/4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0.2%로 경기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2007년 4/4분기 42.1%)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청년층 수요의 감소가 아직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그림 3〉 최근 청년층 고용률

(단위 : %)



1) = (15~29) / (15~29)

: ,

○ 2010년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8.6%)은 청년실업률보다 2.7배 높은 23.0%로 청년층의 약 1/4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2)]

- 즉 전반적인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취업애로층이 확대되고 있어 청년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임

1) 고용노동부, 해외노동동향, 2012.1.5
2)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2010

〈표 3〉 최근 청년실업률(자)과 청년층 체감실업률(자) 비교

(단위 :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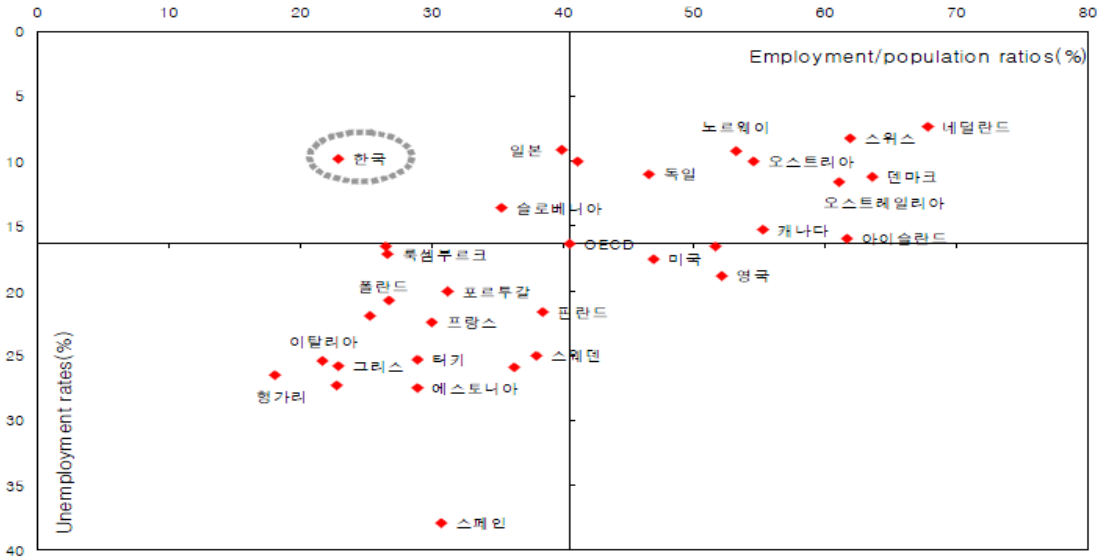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1~6월
청년실업률(청년실업자)	8.1 (34.7)	8.6 (37.0)
청년층 체감실업률(청년층 취업애로층)	22.9 (115.9)	23.0 (116.2)

1)
2) (+ + +
+) (+ + +
+)

: , , 2010

- 이를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2009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내에서 저실업 저고용 국가로 분류되는 실정임

〈그림 4〉 OECD 주요국 15세~24세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2009년)



) Y OECD

: , , 2010

2.3 충북지역 일반현황

2.3.1

○ 대졸이상 학력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05년 대비 41.7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제활동 참여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현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현재 초졸 이하 12만4천명, 중졸 8만5천명, 고졸 30만6천명, 대졸이상은 24만8천명으로 나타났음
-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20~29세 인구는 05년 대비 -8.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05년(A)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B)	비교증감
교육정도별	계	698	701	710	726	739	753	764	9.46
	초졸 이하	141	138	140	132	128	124	124	-12.06
	중졸	93	90	85	90	85	85	85	-8.60
	고졸	289	287	291	299	301	306	306	5.88
	대졸이상	175	187	194	204	225	238	248	41.71
	전문대	59	67	70	67	70	76	89	50.85
	대학교	117	120	124	138	155	162	160	36.75
연령별	계	698	701	710	726	739	753	764	9.46
	15~19세	7	6	6	5	4	6	7	0.00
	20~29세	117	109	99	99	107	107	107	-8.55
	30~39세	174	173	175	179	175	175	168	-3.45
	40~49세	193	192	196	203	205	205	205	6.22
	50~59세	109	120	131	140	146	156	166	52.29
	60세이상	97	100	103	100	101	105	111	14.43

) = [(B-A)/A]×100%

: ,

2.3.2

○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비중은 2011년 현재 14.3%로 전국평균 16.0%보다 낮은 상황임

▪ 2011년 전국 청년층 취업자 비중(16.0%) > 충북 청년층 취업자 비중(14.3%)

- 또한 2000년 이후 주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29세의 취업자 수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1.9%) 보다 낮은 -2.2%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표 5〉 연령별 취업자 현황 및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200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전 국	합 계	21,156	100	24,244	100	1.2
	15~19세	389	1.9	227	0.9	-4.4
	20~29세	4,490	21.2	3,652	15.1	-1.9
	30~39세	6,137	29.0	5,786	23.9	-0.5
	40~49세	5,277	24.9	6,611	27.2	2.1
	50~59세	2,899	13.7	5,083	21.0	5.3
	60세 이상	1,963	9.3	2,886	11.9	3.6
충 북	합 계	665	100	746	100	1.1
	15~19세	12	1.8	7	0.9	-3.0
	20~29세	130	19.5	100	13.4	-2.2
	30~39세	174	26.2	164	22.0	-0.5
	40~49세	162	24.4	202	27.0	2.0
	50~59세	99	14.9	164	22.0	4.8
	60세 이상	88	13.2	110	14.7	2.1

) '00 '11

: ,

2.4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실태 및 요구분석

2.4.1

○ 충북지역 청년층의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제조업', '사무관련직'의 취업자수가 가장 많았음

- 2010년 기준으로 충북지역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2,553명 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12.5%), 도매 및 소매업(1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0%) 순으로 나타났음

〈표 6〉 충북지역 청년층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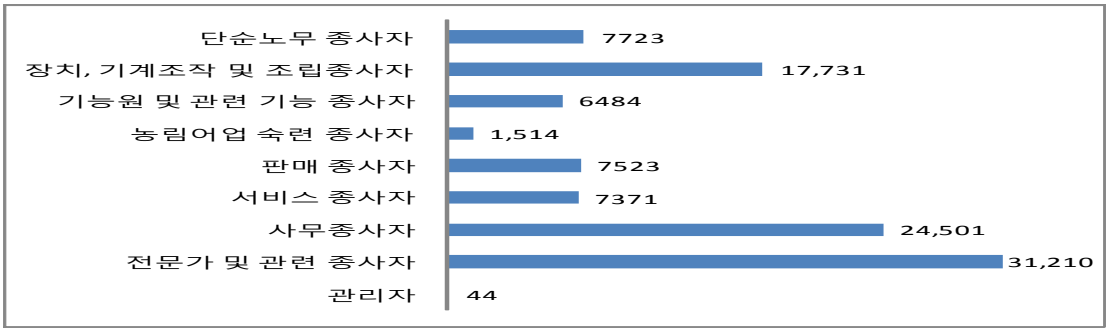
구분	인원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1450	1.4
광업	374	0.4
제조업	32,553	3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7	0.1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0	0.2
건설업	2,725	2.6
도매 및 소매업	12,386	11.9
운수업	2,133	2.0
숙박 및 음식점업	7,630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84	1.1
금융 및 보험업	4,271	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50	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15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304	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21	2.5
교육 서비스업	13,010	1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83	1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2	1.5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78	2.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13	0.4

: ,

- 2010년 충북지역 청년층의 직종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210명으로 가장 많았음
  - ▪ 다음으로 사무종사자(24,501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7,731명), 판매종사자(7,523명)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5〉 충북지역 청년층 직업별 취업자수

(단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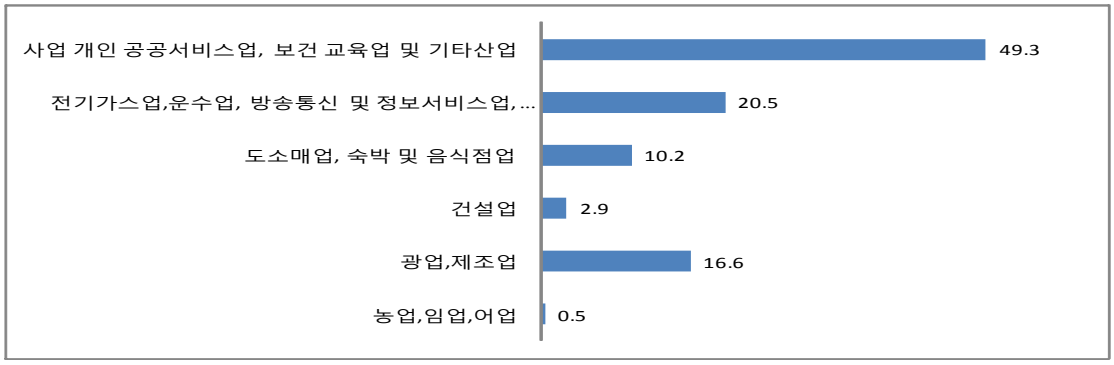
2.4.2

○ 충북지역 청년층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보건·교육업 및 기타산업', '사무관리직'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북지역 청년층이 희망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보건·교육업 및 기타산업이 49.3%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전기·가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20.5%, 광업, 제조업 16.6%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산업

(단위 : %)



: ,

- 충북지역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사무종사자로 24.5%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1.6%, 서비스종사자 19.8%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충북지역 청년층 희망직업(상위 5개 직업)

(단위 : 명, %)

희망직업	인원	비중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746	21.6
사무종사자	1,978	24.5
서비스종사자	1,596	19.8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713	8.8
판매종사자	647	8.0

) 5

: ,

03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1. 인력의 고학력화
2. 청년층이 느끼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3. 저임금 · 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03 충북지역 미스매치의 원인

3.1 인력의 고학력화

○ 2010년 현재 충북지역의 진학률은 85.7%로 2000년 72.3%보다 13.5% 상승

- 전국 진학자 비율 : 2000년(68.0%) → 2010년(79.0%)
- 충북 진학자 비율 : 2000년(72.3%) → 2010년(85.7%)

〈표 8〉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졸업자	764,712	569,272	633,539
	진학자	519,811	467,508	500,282
	비율	68.0	82.1	79.0
충북	졸업자	23,469	18,285	19,128
	진학자	16,970	15,447	16,400
	비율	72.3	84.5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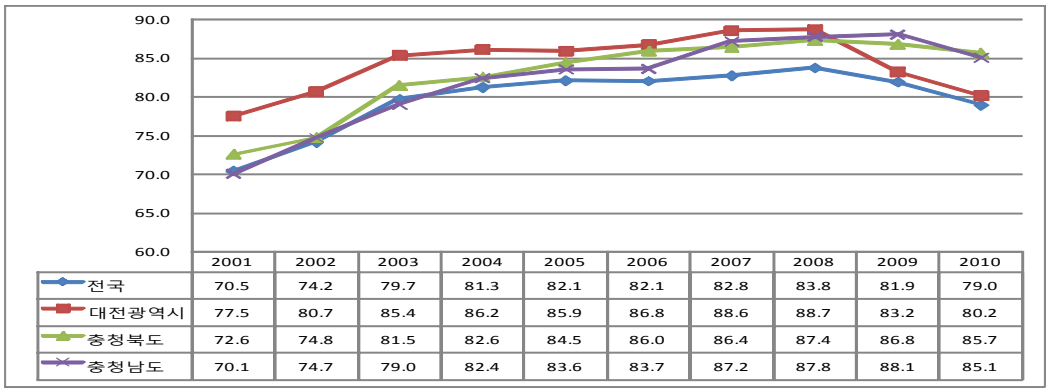
1) 2010 +
: ,

○ 인근 지역과 비교하여도 충북지역의 진학비율은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충북(85.7%) > 충남(85.1%) > 대전(80.2%) > 전국(79.0%)

〈그림 7〉 지역별 진학자 비율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79.0
대전광역시	77.5	80.7	85.4	86.2	85.9	86.8	88.6	88.7	83.2	80.2
충청북도	72.6	74.8	81.5	82.6	84.5	86.0	86.4	87.4	86.8	85.7
충청남도	70.1	74.7	79.0	82.4	83.6	83.7	87.2	87.8	88.1	85.1

: ,

○ 고학력 인력의 증가는 한정된 일자리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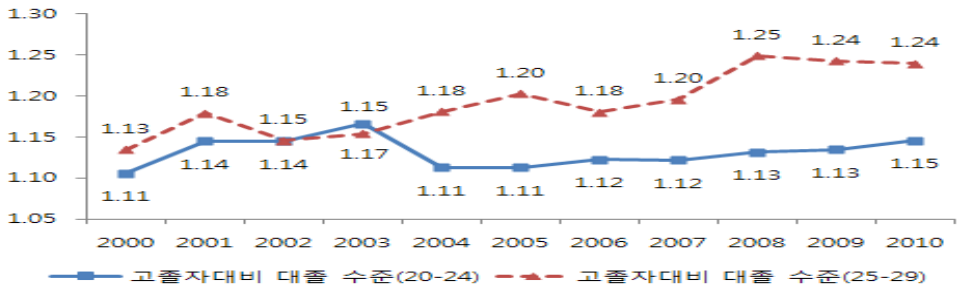
- 이러한 고학력화는 개인으로서는 일종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며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긍적적 효과도 있음

○ 고학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요구임금과 실제임금 간의 괴리를 발생시킴

- 고졸자의 월급여를 1로 할 때, 동일 연령대 대졸 이상의 월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4세 : 고졸자를 1로 했을 때 대졸 수준은 1.15배
  - 20~29세 : 고졸자를 1로 했을 때 대졸 수준은 1.24배
- 즉, 고학력이 이루어질수록 동일 연령의 고졸자대비 임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대학교육의 임금 프리미엄

(단위 : 배)



1) 20~24 1

2) 24~29 1

: , ,

3.2 청년층이 느끼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 세계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 역시 산업구조가 고용절약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전 산업의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8.2명으로 2005년 8.7명보다 0.5명 하락하였음
  - ▪ 취업계수란 산출액 10억원 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 산업구조 중 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 2007년 3.0명으로 2005년 3.4명 보다 0.4명이 감소한 실정임

〈표 9〉 주요 산업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5~06년	06~07년
전산업	8.7	8.4	8.2	-3.4	-2.4
제조업	3.4	3.2	3.0	-5.9	-6.3
건설업	10.5	11.1	10.7	5.7	-3.6
서비스업	13.1	12.9	12.8	-1.5	-0.8

) : 10
: , , 2010

○ 2009년 현재 대기업과 공공행정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 청년층은 대부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괜찮은 일자리'에 관심을 두고 취업하기를 갈망함
- 하지만 대기업의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0%로 1993년 39.3%에서 18.3%p 감소
- 공공행정기관 역시 2009년 10.9%로 1993년 26.5%보다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10〉 공공행정 및 대기업 취업자의 청년층 규모

(단위 : 만명, %)

구분	1993	2002	2009
공공행정	16.1(26.5)	8.3(11.8)	11.2(10.9)
300인 이상 대기업	71.5(39.3)	40.8(25.0)	41.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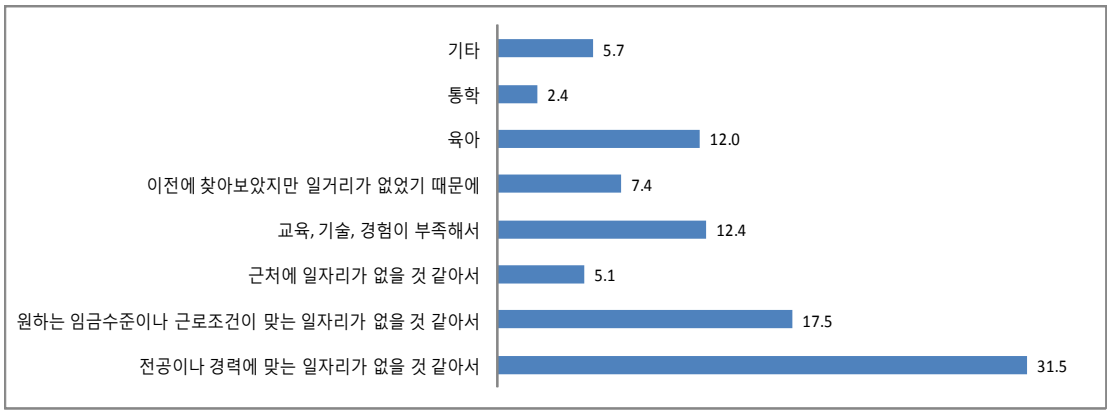
)
: , , 2010

○ 충북지역 청년층 또한 구직을 단념하는 이유로는 전공이나 경력,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 등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청년층의 구직단념이유를 살펴보면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것 같아서가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17.5%,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9〉 청년층 구직단념 이유

(단위 : %)



: ,

3.3 저임금·저학력 중심의 산업구조

○ 충북지역 제조업의 1인당급여액은 전국 평균과는 약 2백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현실임

-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종사자수 : 117,526명(전국비중 : 4.77%)
- 전체 급여액에서 충북지역의 비중 : 3,437,255백만원(전국비중 : 4.49%)
-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

〈표 11〉 광업 및 제조업 비교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

시도별	2009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비중	급여액(백만원)	비중	1인당급여액	순위
전 국	58,377	2,465,265	100.00	76,502,548	100.00	31.03218	
서 울	5,097	131,987	5.35	3,263,758	4.27	24.72787	14
부 산	3,826	125,589	5.09	3,245,591	4.24	25.84296	13
대 구	2,871	95,301	3.87	2,238,973	2.93	23.4937	15
인 천	4,299	156,598	6.35	4,203,440	5.49	26.84223	12
광 주	1,069	56,966	2.31	1,793,308	2.34	31.48032	6
대 전	729	32,937	1.34	1,024,099	1.34	31.09266	7
울 산	1,254	138,657	5.62	6,799,683	8.89	49.03959	1
경 기	20,112	726,109	29.45	21,395,413	27.97	29.46584	9
강 원	826	32,982	1.34	889,018	1.16	26.95464	11
충 북	2,081	117,526	4.77	3,437,255	4.49	29.24676	10
충 남	2,934	183,493	7.44	5,955,920	7.79	32.45857	4
전 북	1,624	74,301	3.01	2,263,589	2.96	30.46512	8
전 남	1,364	67,892	2.75	2,542,503	3.32	37.44923	2
경 북	4,020	211,823	8.59	6,808,158	8.90	32.14079	5
경 남	6,105	309,133	12.54	10,563,156	13.81	34.17026	3
제 주	166	3,971	0.16	78,684	0.10	19.81466	16

) 1

: , .

- 광업 및 제조업 중 1인당급여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음

〈표 12〉 광업 및 제조업 1인당급여액(상위20개업종)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2009년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백만원)	1인당급여액
석유 정제품 제조업	98	9,849	562,462	57.10854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6	79,177	4,517,730	57.0586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467	24,079	1,198,033	49.75427
철도장비 제조업	72	4,834	234,598	48.53082

담배 제조업	10	2,736	130,229	47.5983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114	131,367	6,042,589	45.99777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64	7,851	359,380	45.77506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9	7,110	313,024	44.0258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31	20,044	865,383	43.17417
반도체 제조업	321	91,906	3,852,534	41.9182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5	4,164	172,630	41.45773
석탄 광업	5	3,630	148,884	41.01488
1차 철강 제조업	1,366	78,595	3,177,962	40.43466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63	9,283	372,441	40.12076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59	14,730	560,580	38.05703
알콜음료 제조업	94	6,662	251,552	37.75923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78	39,566	1,443,547	36.48453
의약품 제조업	271	22,523	784,009	34.80926
화학섬유 제조업	72	4,351	150,214	34.5240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103	9,235	312,472	33.83563
평균	267	28,585	1,272,513	42.97197

1) 3
2) 1
: , .

○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과 전국 평균 급여액 상위 산업 간의 급여차이 존재

-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의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을 살펴보면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국 상위 20위까지의 산업과 충북 상위 20위까지의 1인당 급여액 평균은 약 7.7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 전국 평균 : 약 43백만원 → 충북 평균 : 약 35.3백만원

-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9백만원, 20위 산업간 차이는 약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 1위 → 전체 : 석유정제품제조업 > 충북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0위 → 전체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충북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또한 충북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업종이 전국 급여액 상위 업종에 포함되어 있더라

도 임금 차이 발생

- 전체 임금상위 산업 중 충북지역 상위 산업과 매칭되는 산업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등 2개 산업임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의 경우 전국평균 급여액은 약 49백만원 이지만 충북지역에서의 급여액은 약 45백만원으로 약 3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 반도체 제조업의 경우에는 충북지역 평균임금은 약 30백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41백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함

〈표 13〉 충북지역 광업 및 제조업 1인당 급여액(상위 20개 업종) 비교

(단위 : 개,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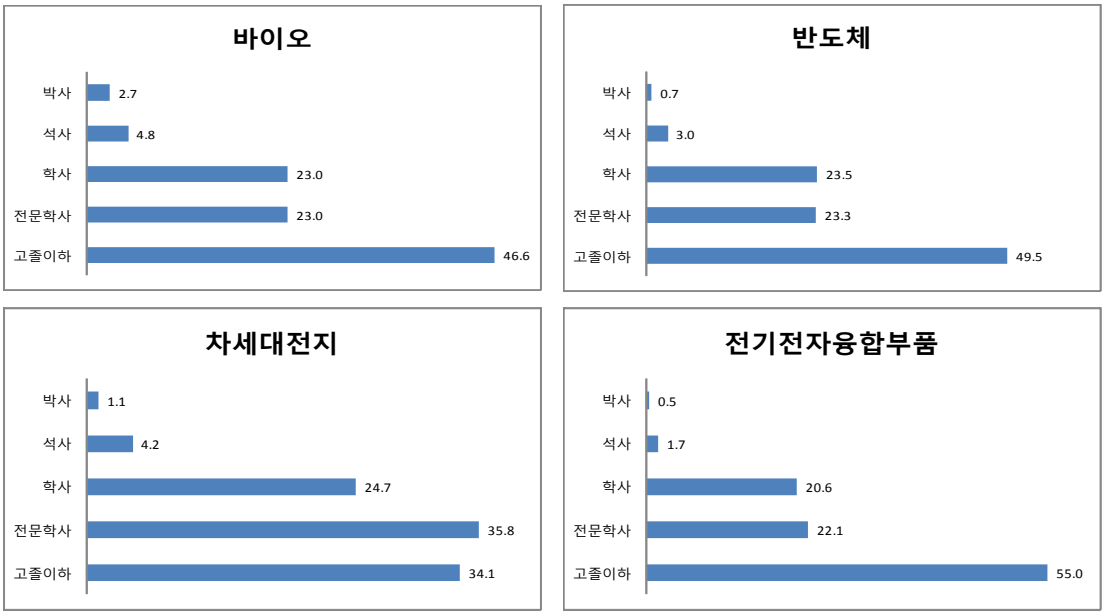
2009년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백만원)	1인당급여액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3	1,361	65,704	48.27627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4	890	40,329	45.31348
알콜음료 제조업	7	898	37,908	42.2138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17	1,395	54,895	39.35125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93	4,146	156,706	37.79691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4	341	12,814	37.57771
금속 주조업	8	525	19,726	37.57333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65	4,427	160,367	36.22476
의약품 제조업	37	3,991	141,956	35.56903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2	469	15,829	33.7505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46	2,528	82,962	32.81725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7	956	31,122	32.55439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80	4,936	160,399	32.49575
전자부품 제조업	73	12,429	401,227	32.2815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6	1,010	31,981	31.66436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5	395	11,939	30.22532
자동차 부품 제조업	71	5,938	179,026	30.14921
반도체 제조업	27	11,214	336,331	29.99206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0	3,595	106,948	29.7491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8	218	6,473	29.69266
평균	37	3,083	102,732	35.26343

1) 3
2) 1
: , .

-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고졸이하의 저학력 인력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충북지역 전략산업기술인력 보유현황–학력수준별/전략산업별

(단위 : %)



: , 2009 , 2010

Chung Buk Visio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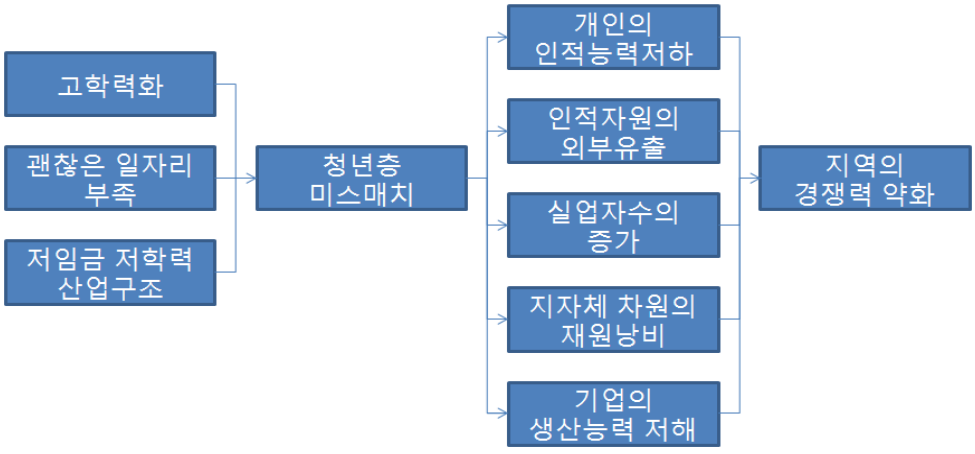
04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04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는 단기적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의 토대라 할 수 있음

〈그림 11〉 미스매치의 파급효과



: , , 2010,

- 인적능력저하 : 청년층의 미스매치가 고착화되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취업의욕 및 자신감 감소 등의 개인의 인적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외부유출 : 충북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도내 보다는 역외에서 구직을 하려는 인력이 늘어날 수 있음
  - 전문대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56.2% > 도외 43.8%
  - 대학교 졸업자 지역 내 취업 비중 : 도내 36.3% < 도외 63.7%

〈표 14〉 충북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 현황(2009년)

(단위 : 명, %)

구분	전문대				대학교				합 계			
	취업자	지역내 근무	지역내 취업률	순위	취업자	지역내 근무	지역내 취업률	순위	취업자	지역내 근무	지역내 취업률	순위
서울	13,678	10,893	79.6	2	36,292	27,366	75.4	2	49,970	38,259	76.6	2
부산	11,880	8,860	74.6	4	16,868	10,294	61.0	5	28,748	19,154	66.6	5
대구	12,322	8,220	66.7	6	5,145	2,683	52.1	8	17,467	10,903	62.4	6
인천	6,210	2,963	47.7	14	2,774	790	28.5	15	8,984	3,753	41.8	13
광주	7,938	5,222	65.8	7	7,166	4,131	57.6	6	15,104	9,353	61.9	7
대전	7,097	4,190	59.0	9	7,945	3,804	47.9	10	15,042	7,994	53.1	9
울산	2,444	1,708	69.9	5	1,651	1,169	70.8	3	4,095	2,877	70.3	4
경기	44,486	19,269	43.3	15	20,582	7,119	34.6	13	65,068	26,388	40.6	15
강원	4,745	2,687	56.6	10	8,755	3,358	38.4	11	13,500	6,045	44.8	11
충북	5,364	3,015	56.2	11	7,979	2,897	36.3	12	13,343	5,912	44.3	12
충남	6,070	2,254	37.1	16	16,468	3,461	21.0	16	22,538	5,715	25.4	16
전북	6,448	4,181	64.8	8	9,214	4,929	53.5	7	15,662	9,110	58.2	8
전남	8,902	4,466	50.2	12	5,428	2,722	50.1	9	14,330	7,188	50.2	10
경북	13,550	6,566	48.5	13	14,301	4,878	34.1	14	27,851	11,444	41.1	14
경남	8,681	6,755	77.8	3	7,444	4,970	66.8	4	16,125	11,725	72.7	3
제주	2,793	2,441	87.4	1	1,265	959	75.8	1	4,058	3,400	83.8	1

: , , 2009

- 실업자수의 증가 : 청년층의 미스매치가 지속될 경우 이는 실업자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소비를 위축시켜 지역 상권 및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성장률은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3)]
- 지자체 재원낭비 : 충청북도는 증가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제공,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고용노동부, 노동경제용어 길라잡이, 2004

〈표 15〉 충청북도 청년층 취업지원 정책 현황

대상 / 내용	기업	대학	학생	고용서비스기관
정보·인프라 제공	· 충청북도취업박람회		· 충청북도취업박람회	
재정 지원	·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 기업맞춤형인턴제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 외국인투자기업고용및고육훈련보조금	· 지역혁신센터지원 · BK21 ·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 기업맞춤형인턴제	
네트워크 구축	· 충북지방고용심의회 ·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 지역고용지원협의회	· 충북지방고용심의회 ·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 지역고용지원협의회 ·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심사위원회	· 미래신산업인력양성 · 문화관고아해설사육성 · 여성인턴제사업 · 농산업인턴제산업	· 충북지방고용심의회 ·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 충청북도전략산업육성위원회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 지역고용지원협의회 · 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심사위원회

: , , 2011,

- 기업의 생산능력 저해[4] :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기존 산업인력의 숙련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생산 기반을 붕괴할 수 있음

4)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2010

05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
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의 확충
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6.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 등을 통한 정보제공
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05 지자체 차원의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방안

5.1 충북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명 필요

○ 충북지역 제조업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금측면에서 비교적 열악한 면을 보이고 있음

- 전국 급여액 평균 약 31백만원 > 충북 급여액 평균 약 29백만원
- 상위 20위까지의 산업 중 1위 산업 간 차이는 약 9백만원, 20위 산업간 차이는 약 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
- 전체 임금상위 산업 중 매칭되는 산업(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등도 임금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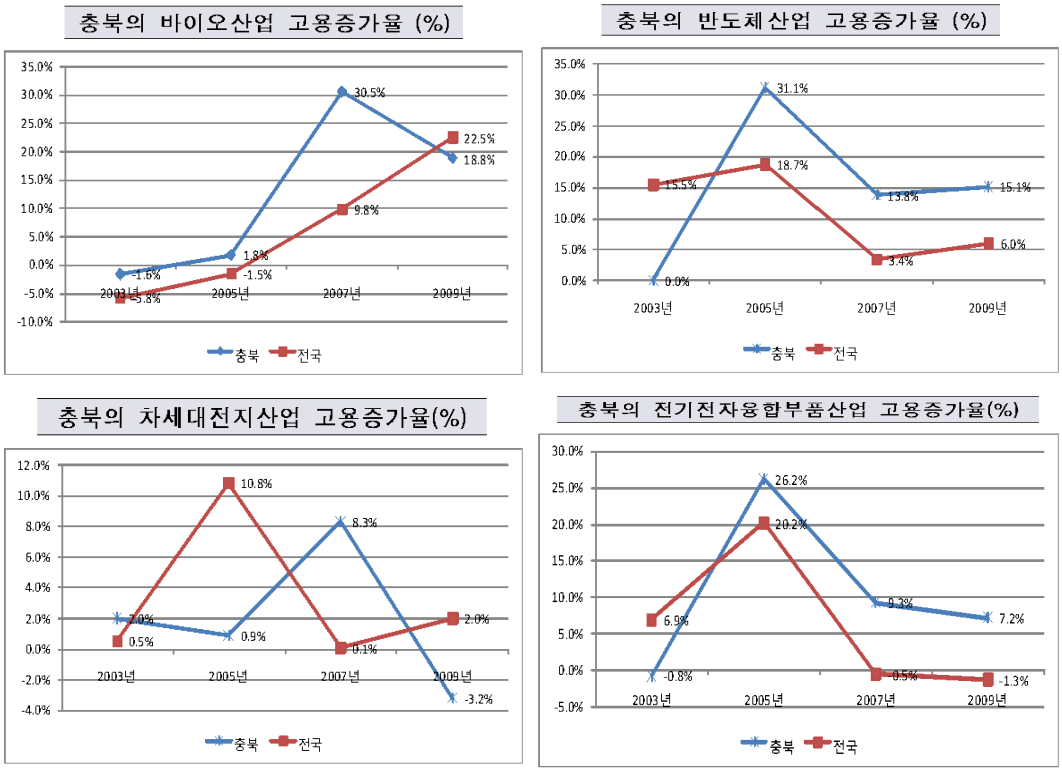
〈표 16〉 1인당 급여액 상위지역 간 비교

지역	1인당 급여액 상위 산업	1인당 급여액
울산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약71백만원
전남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약68백만원
경남	철도 장비 제조업	약59백만원

1) 3
2) 1
: , .

○ 물론 이러한 현상은 기업자체적, 지리적, 사회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산업 이외의 고임금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 여겨짐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고용증가율



: , 2012 , 2012

5.2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청년인력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처별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사업 간의 유사·중복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업이 도(지자체)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투입과 산출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계획에서부터 실행, 성과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도 차원에서 전문적인 '청년인력 코디네이터'를 두어 청년층 인력양성사업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충북지역 범부처 인력양성사업

부처	사업명	사업과제	지역 담당기관	비고
교육과학기술부	이공학 교육활성화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충주대학교 영동대학교	
		공학교육인증제	충북대학교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	
		문제 해결형 인력양성	충북대학교	
	WISE 프로그램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한국교원대학교	
	WCU사업	WCU사업	충북대학교	
	BK21	BK21	충북대학교 건국대학교(충주)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지원	커넥트 코리아 사업	충북대학교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	-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지역혁신 인력양성	충주대학교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	의료기기직무의 현장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현)충북평생교육진흥원)	
		반도체·태양광 기반기술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식경제부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건국대학교(충주)	
		지식정보보안 인력양성	-	
		SW 전문인력양성	지식산업진흥원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충북대학교	
	산업현장 전문인력역량강화	SW융합인력전문교육	-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충북대학교	
	지역산업 인력양성	지역산업 인력양성	충북 TP	
	무역인력 양성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건국대학교(충주)	

: , , 2011

5.3 고급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대응 전략 필요

- 현재 도내에는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고급인력의 활용이 중요시되는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초·중급 인력보다는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사업들의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지역대학들은 대학 및 학과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각 사업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고급인력의 수급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양성 및 이전기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교육과학정보통신융합대학원대학교 설립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이전 공공기관 및 추진산업

○ 혁신도시

기관수	이전기관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 , , 2011.5.27

○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관수	이전기관
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 http://www.kbio.kr/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주요사업
기초과학연구원설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글로벌 연구기반조성, 글로벌비즈니스환경 구축

: , http://www.isbb.go.kr/

5.4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구직자의 기대수준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임
- 이러한 구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괜찮은 일자리'라 불리울 수 있는 대기업 및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함

-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기업이 충북지역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직업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인력채용 유인정책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임

예시 : 혁신도시 이전기관연계 성장산업 도출 및 관련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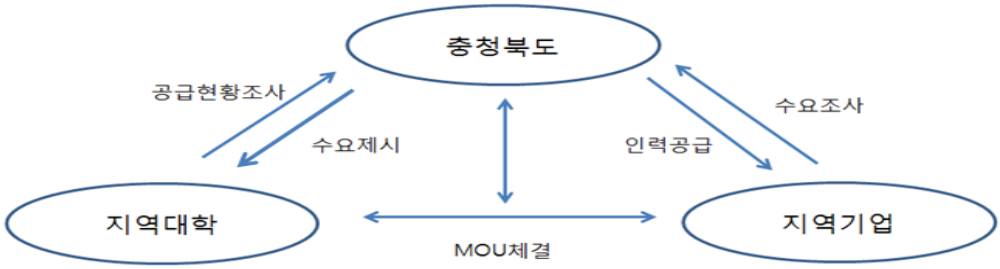
구분	해당기관	내용
IT 지원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핵심키워드: IT 컨버젼스 컴퓨팅, 네트워킹 등 기술의 제품 및 서비스와 융합
		타깃기업: IT기술 관련 연구소
인력개발 교육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핵심키워드: 스마트러닝 E-learning, E-training 등 정보기술을 활용, 학습 및 가상훈련
		타깃기업: 에듀윌, ㈜능률교육, SKC&C 등 E-러닝 사업 관련 52개 기업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핵심키워드: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수소에너지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능평가 및 GHG (Green House Gas) 검증업무
		타깃기업: 퓨얼셀파워,GS퓨얼셀, 오선텍 등 수소에너지 생산 관련 기업

: , , 2011

5.5 도차원의 인력수급 네트워크 구축

-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와 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양성하는 인재에는 분명 미스매치가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력수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기관에서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여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력수급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공생발전업무협약(11.12.17)의 연장선상에서 고졸인력 뿐 아니라 대졸인력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 12〉 인력수급네트워크 구축(안)



기관 간 공생발전업무 협약 체결

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 4개 기관 공생발전업무협약 체결(11.12.07)

○ 협약내용

- 학력이 아닌 대우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고졸 인력을 육성하며,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부활동 확산에 협력한다.

- 또한, 보다 광범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미스매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예시 : '(가칭)청년 취업지원 지역사회협약' 체결

- 최근 구직자들의 대부분은 개인의 적성이나 발전성을 중시하기보다는 임금이나 명성 등의 외재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임
  - ▪ 이같은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잦은 이직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는 미스매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기업협의회 등 뿐만 아니라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학, 학부모, 전문가협회 등이 연계된 '(가칭)청년 취업지원 지역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기부터 미래 직업수요에 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고 심화되고 있는 미스매치를 완화 시켜야 할 것임

5.6 '중소기업백서' 발간 및 '일자리 의무등록제도 추진'등을 통한 정보제공

- 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사이트, 대중매체, 친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음
- 하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채용정보를 확인하였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입장에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중소기업백서'를 발간하여 구직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일자리 의무등록제도'를 추진하여 일자리 발생시 DB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여 구인·구직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시 : 일본 중소기업 백서(중소기업정책연구DB, 11.07.01)

○ 본 백서에서는 중소기업의 동향 및 현황 중요성 등 중소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 주요목차

- 제1부 최근 중소기업 동향
- 제2부 경제사회를 떠받치는 중소기업
- 제3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중소기업

5.7 청년취업통계DB 구축

- 현재 고용 및 노동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의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정확한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관련 통계는 지역의 고용정책의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따라서 충북지역 자체적으로 고용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예시 :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서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8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사이트 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채용정보 사이트는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및 잡코리아, 사람인 등 민간기관 사이트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실정임
- 하지만 제공하는데 있어 그 범위가 커 충북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음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사이트 워크넷이 정보의 제약이 상당하고 질보다는 양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5)]
- 따라서 충북의 특성을 살린 구인·구직 및 창업, 인턴제, 채용설명회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종합적인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이 필요함

예시 :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구인·구직 상담 및 연결, 전직지원, 토탈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정보 통합 전상망(인력은행) 운영
- 취업상담실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동행면접, 채용대행서비스 등
- 일자리발굴 : 년 4회(기업 일자리 현황조사 및 발굴)
- 전직 서비스제공 : 퇴직자, 전직희망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 및 창업교육, 알짜기업 알리미, 기업 현장탐방투어, 채용설명회 등

5) 이튜데이, 박재완 '노동의 역설' 심각하다, 2011.05.27 내용 발췌

5.9 우수 인력양성사업의 홍보 및 확대

- 현재 도내에는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수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던 인력수급네트워크 등을 통한 홍보로 수요와 공급차원 모두에서 우수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예시 : '희망이음 프로젝트'(충북테크노파크)

○ 지식경제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

○ 지자체·테크노파크가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

○ 사업내용

- 대학생 10,890명(100개 대학)과 604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하여 최종 4,500여명의 대학생이 325개 기업을 직접 탐방하고 기업분석을 실시함
- 충북지역실적 : 22개기업에 249명의 대학생이 참가
  → 실 수요자인 기업·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2012년에 참여대상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까지 확대실시

5.10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가치관 교육 지원

- 현재 청년층 인력 수급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생력의 부족임
  - 이로 인하여 임금 및 고용환경 등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됨
  - 그리고 비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 또한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인하여 취업 눈높이를 맞추지 못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등교육기관에서부터 고용시장의 현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Chung Buk Vision 2012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 (문화동 15)
자료문의 TEL : (043)220-1107~08 / FAX : (043)220-1199 / www.cri.re.kr

비매품
93320
9 788964 550700
ISBN 978-89-6455-070-0